지역 국보·보물 국가관리 '첩첩산중'

지방문화재청 신설 주장엔 긍정

조직·인력 급선무…실현 논란

최근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분산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문화재청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학계 등에서는 그동안 지방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청 설립에 어떻게 대응할 지 불투명한데다 인력충당문제도 맞물려 실현되기까지에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 ▲지방청 설립 ▲나주 문화재연구소 등 산하 지방연구소 활용 ▲중앙박물관과 산하 11개 지방 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조직으로 흡수해 지방청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 사고로 문화재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안을 연구하고 있고, 지방청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에는 중흥산성삼층석탑 등 16건의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민속자료 등)와 신창동유적·충효동도요지 등 2곳의 사적이 있다. 전남에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 318건의 지정문화재와 순천 낙안읍성 등 41곳의 사적이 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지방 문화재청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보 제13호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에 반해 일선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은 평균 1~2명 정도다. 문화재가 많은 나주, 순천지역도 고작 5명이 관리하고 있는 등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조유전 토지박물관장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각 지역에 문화재청의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면서 "민족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인력 충원과 예산 등의 이유로 지방청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전남대박물관 황호균 학예연구사는 "일부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힘들다"면서 "문화재의 구조와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소방당국, 경찰 등이 함께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지역 불교문화재 14건 보물 지정

전남지역 불교 문화재들이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1일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羅州尋香寺乾漆阿彌陀佛坐像·고려 후기·보물 제1544호) 등 전남지역 사찰 등지에 보관 중인 불교 문화재 1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지정된 불상은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고려 말~조선 초·제1545호)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14세기·제1546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조선전기·제1547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1636년·제1548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 16나한상 일괄(1624년·제1549호)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28~1644년·제1550호) 등이다.

옻칠을 한 다음 금물을 입히는 건칠불(乾漆佛)인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불교조각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 회화는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1764년·제1552호)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1736년·제1553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1753년·제1554호)가 보물로 지정됐다.

또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 동종(1644년·제1555호) ▲여수 흥국사 강희 4년명 동종(1665년·제1556호) ▲고흥 능가사 강희 37년명 동종(1698년·제1557호) ▲순천 선암사 강희 39년명 동종(1700년·제1558호) 등도 보물이 됐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물 제1544호로 지정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대산문화재단, 미 버클리대 연수 작가 모집

대산문화재단은 미국 서부의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버클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 작가를 4월30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작가로 선정되면 9월부터 3개월 간 UC 버클리에 체류하며 강의와 워크숍, 작품 발표회 등에 참석하고 미국 저명작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 소설, 희곡 등 순수 창작 분야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하의 문인 중 해당 분야에서 창작단행본 1권 이상을 출간한 문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문학적 업적, 영어 구사 능력, 체류 계획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문의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 02-721-3203.

/연합뉴스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빛내리회' 결성

"'광주의 자산' 널리 알려야죠"

진흥회 주관 매년 5월 발표무대 등 논의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소리의 본향(本鄕)'으로 불려왔다. 수많은 국악 명인들을 배출했고, 그 정점에 광주 광산 출신인 국창 임방울 선생(1904~1961)이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임방울국악제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행사로 대통령상 수상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11일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처음으로 광주문예회관에서 자리를 같이 했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포천·이하 진흥회)가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건 해마다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데서 그칠 뿐 수상자들에게 발표무대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사업이 전무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유명 소리꾼을 발굴해 놓고도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임방울국악제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던 광주국악대전과 임방울국악제가 지난 2003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행사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는 모두 18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충일, 전예주, 정선화, 정의진, 주정심, 김향순, 최연자, 주소연, 박춘맹, 주순자, 김순자, 차복순, 김경호, 소주호, 김찬미씨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진흥회측은 수상자들에게 발표무대를 제공한다. 우선 오는 5월 한달간 광주시 5개 구청 문예회관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특별공연을 갖는다. 이 무대는 해마다 정례화시킬 예정이며 이 공연을 모태로 임방울국악단 등 모임의 확대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해마다 임방울국악제 전야제 등 각종 행사 무대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상 수상자 모임인 '빛내리회'를 결성, 임방울 선생 알리기와 국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회장으로는 정의진씨가 추대됐고 고문은 윤충일씨, 부회장은 김향순씨가 맡았다.

김포천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임방울 선생의 예를 기리는 국악의 높은 봉우리들"이라며 "진흥회가 열심히 멍석을 깔아드리고 밀어드릴테니 국악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진(60) 회장은 "전주대사습 등 여러대회가 있지만 임방울국악제가 최고의 국악제가 되도록 회원들과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송정역사에 임방울 선생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달팽이, 태양과 영혼의 빛으로

한국화가 주영남·은공예가 주민아 자매展 13~19일 무등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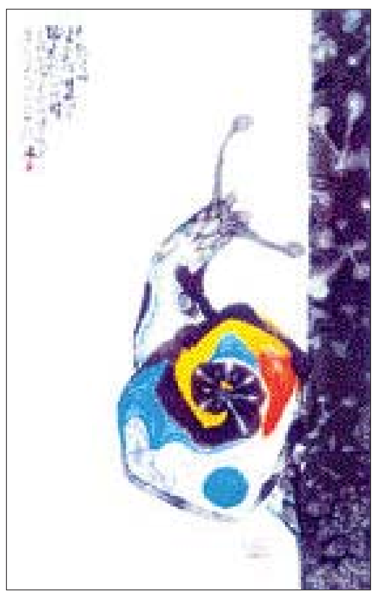
한국화가 주영남씨와 은공예가 주민아씨 자매가 13~19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합동 전시회를 갖는다.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단아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주영남씨는 '느림의 소나티네'를 주제로 소나무와 대나무에 붙어 한가롭게 쉬고 있는 달팽이를 화려한 색채로 그려냈다.

동생인 주민아씨는 '동행 그리고 꿈을 찾아'를 주제로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달팽이의 다양한 모습을 은으로 표현했다.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과를 졸업한 주영남씨는 광주·일본·가고시마 교류전, 해우소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주민아씨는 아트클레이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은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영남 작 '별헤는 밤에…'